

지역 소식통

정읍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나서

정읍시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대출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시는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되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거주 중인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신용유이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채무 분할 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일부를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대폭 확대 지원

고창군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총사업비 13억1000만원을 들여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영농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관리가 쉬운, 동력실분무기, 비료살포기 위주로 공급되며,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농업인이 자율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50만원 이하의 중소형농기계 제품으로 농기계 가격에 따라 40%를 지원 받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광역방재센터 유치 박차 가해

부안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우선협상대상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난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안군은 지역 안전 및 발전을 위해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비 약 100억을 투자해 부지 면적 10,000㎡, 건물 면적 2,000㎡, 지상 3층 규모의 광역방재센터를 2025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센터에는 제어실, 상황실, 회의실, 사무실, 언론브리핑 공간 등이 들어선다. 부안군에서는 출포면에 위치한 군유지에 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

이다.

기존에는 원전 반경 8~10km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했었는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비상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전 반경 20~30km로 긴급보호조치구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보안 변신, 진서 출포 위도 5개면이 해당 구역으로 포함되었으며, 방사능방재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대전에 방사능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를 통해 효과적인 광역 대응체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는 한빛원전과 관련한 방사능재난 발생시에 현장에서 신속한 사고수습과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평시에는 방재시설·장비 점검, 방재요원 및 주민대피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시에는 신속한 방사능방재 및 긴급 주민보호조치 등 현장대응을 총괄하여 수행하게 된다.

부안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유치를 통해 원전 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에 다짐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유치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어려운 이웃 1172세대 보호지원 결정

고창군이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희망을 키우고, 함께 누리는 행복 고창 만들기'를 목표로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및 연간 조사계획, 2022년 우선보장 가구 심의 및 보장비용 징수 결정,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2022년 자활지원계획, 2021년 긴급지원대상자 최종의결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받지 못한 노인세대, 사실상 이혼 등으로 홀로 어렵게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세대 등

234세대와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938세대 등 총 1172세대를 보호 지원 결정했다.

고창군은 올해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는 1373억3400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연금과 수당 등 소득을 보전한다.

고창군은 "저소득층에게 명절위로비 지원, 월등 및 폭염대책비 지원,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대폭 확대 등 고창형 복지정책 마련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정읍시, 플라스틱 컵·접시 등 제한...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의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수저, 포크·ナイ프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량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행정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과 업소들이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돌려주면 음료를 살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여야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유진섭 시장 간부회의 주제, 유권자 방역 관리 만전 주문

유진섭 시장이 7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관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선거권을 가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산불 방지 운영계획과 초동 진화 체계 구축 계획

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산립 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산림청·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산불 방지 활동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춘기요 특구를 경쟁력 있는 사계절 문화관광 콘텐트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트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춘기요 특구를 경쟁력 있는 사계절 문화관광 콘텐트로 만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군수, 신학기 코로나 확산 예방 대응 철저

권익현 부안군수가 신학기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7일 열린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신학기를 맞아 지역내 집단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안지역 학교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 군에서 철저히 준비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3~4월은 중앙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한도액을 설

정하는 기간"이라며 "부처단체에서 최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전북도를 방문해 현안사업이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부서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원인이 청사로 방문해 업무처리를 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 부서에서는 민원업무에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따뜻해지는 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